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Sault Saint Marie (온타리오주)
파견대학	Algoma University	기간	2018. 01. 21.(일) ~ 02. 11(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p> <p>알고마 대학은 수세인트마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학교는 우리학교에 비하면 작은 편입니다. 하지만 건물이 모두 연결되어 있어 처음에는 길을 조금 헤맸습니다. 학교 내의 시설은 좋습니다. 학교는 한적하고 조용한 분위기입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p> <p>학교에 가는 첫날 시험을 통해 분반을 합니다. A반과 I반으로 나누어서 수업합니다. 다 같이 수업하는 것도 있지만 읽기, 쓰기, 말하기, 문법은 나누어서 진행합니다. 두 반의 내용은 비슷하지만 수업난이도가 확연히 다릅니다. 강사 분들은 모두 친절하시고 문제가 생겨 이야기를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다. 또한 그 외에도 캐나다에서 생활하면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면 인터넷으로 지도를 찾아주시는 등 많은 도움을 주십니다. 과제를 내주시는 수업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제가 있다고 해서 양이 많거나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공책이나 A4는 따로 가져가지 않아도 됩니다. 첫날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얇은 공책과 파일 철을 주는데 거기에 모두 수업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은 따로 챙겨가지 않아도 됩니다.</p>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p> <p>-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p> <p>스노우슈잉, Dog Sledding, 스키, Horse Sleigh Ride, 알파카농장, 초등학교·요양원 봉사, 아이스하키 경기 관람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p> <p>눈에서 활동하는 스노우슈잉, Dog Sledding, 스키, Horse Sleigh Ride는</p>

	스키바지(방수바지)와 부츠가 필수품입니다. 저는 부츠가 없어서 홈스테이 가족에게 빌렸습니다. 하지만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면 하는 문제점이 있으니 꼭 자신의 것을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봉사활동에서는 한국문화에 대한 것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그에 관한 물건을 챙겨서 가면 좋을 것입니다. 활동을 하면서 물건을 구매하는 일 이외에 대여료 같은 것으로 비용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날씨는 엄청 춥고 건조했습니다.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눈이 자주 오지는 않지만 한번 오면 앞이 안보일 정도로 정말 많이 옵니다.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은 겨울에 가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매우 안전합니다. 하지만 저녁 7시 정도가 되면 해가 저서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저녁 8시가 넘어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를 마무리하기 위해 이미 집에 들어와 있어 길에 사람이 적은편입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O) 외부 숙소() 기타()</p> <p>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홈스테이는 좋았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곳에는 아이들이 2명 있어서 아이들이 자는 시간에는 조용히 생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외에 다른 규칙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출국하기 전 홈스테이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아 규칙이나 가서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p>
식사	<p>학교식당() 홈스테이(O) 외부식당() 기타()</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아침은 집에서 알아서 챙겨먹는 방식이었습니다. 점심은 전날 먹었던 저녁을 싸주시거나 샌드위치 혹은 사먹었습니다. 저녁은 주로 홈스테이 집에서 먹고 밖에서 먹고 들어가게 된다면 미리 말해야 합니다. 캐나다 음식은 전체적으로 짜다고 느꼈습니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버스를 타고 40분정도 걸렸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집이 학교와 멀어서 오래 걸린 것이고 어느 집에 머무르는가에 따라서 시간은 다릅니다. 버스배차 시간이 평일 낮에는 30분, 평일 저녁과 주말에는 1시간 이어서 불편했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eTA, 여행자보험		출국 전 사전 납부
환전	약 750,000원	식비, 선물, 생활비
카드	약 50,000원	식비, 면세점
유심	약 50,000원	핸드폰 유심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돈을 모두 다 환전하지 말고 일정금액은 비자나 마스터 카드로 준비해가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나 음료를 살 때 한국보다 저렴한 편이라 현금보다는 카드로 계산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리고 돈은 자신이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조절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저는 외식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동전이 많이 생기니 지갑을 가져갈 때 동전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나 동전지갑을 챙겨서 가면 좋습니다.

저는 유심을 한국에서 사서 갔는데 그 곳에서 사는 것 보다는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가는 것이 편한 것 같습니다.

겨울에 가시는 분들은 캐리어 2개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옷의 부피도 상당한데 기념품까지 사면 나중에 짐을 쌀 때 힘들 것입니다. 저는 캐리어를 큰 것 하나 작은 것 하나 가져갔었는데 1개 가져간 친구들 보다 짐을 쌀 때 수월했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3주라는 기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어서 영어 실력이 확연하게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다양한 자극을 받게 되어 영어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는 확실히 되었습니다. 같이 간 친구들 중에도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과 그곳에 있는 유학생들이 영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캐나다에 도착했을 때는 3주가 길게 느껴졌었는데 돌아오는 날이 되니 정말 짧다고 느꼈습니다.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에 와서 다양한 경험을 한 것은 너무 좋았지만 단기어학연수를 통해 와서 너무 짧은 기간이 아쉽다고 생각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어학연수나 교환학생을 통해 다시 한 번 가고 싶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Searchment Resort(스키장)</p>	<p>Pathways 봉사활동</p>
	
<p>아이스하키 경기 관람</p>	<p>알파카 농장</p>
	
<p>Porcupine Quill 팔찌</p>	<p>공원</p>